

정기선 “친환경·디지털 선박 개발, 바다 대전환 주도할 것”

(HD현대 부회장)

HD현대, ‘포시도니아 2024’ 참가 정기선 부회장 등 경영진 현장 참여 메탄을 추진선·저탄소 연료 선배

HD현대가 세계 최대 조선·해양박람회 ‘포시도니아 2024’에서 미래형 선박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등 HD현대 6개 사는 이달 3~7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77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HD현대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관에 부스를 마련해 메탄을 추진 원유운반선(VLCC)과 컨테이너운반선, 미래형 LNG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 모형을 전시하고, 차세대 저탄소 연료 관련 기술을 선보인다. 별도로 마련한 HD현대 그룹관에는 이중 연료 힘센엔진과 노후 LNG선 개조 모형 등을 전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기선 HD현대 부



(왼쪽 일곱 번째)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이 지난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포시도니아 2024’에서 미국선급협회(ABS), 라이베리아기국(LISC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사각지대를 해소한 새로운 선박 구조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글로벌 선사 및 선급 등 조선·해양 관계자들과 조선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HD현대는 지난 3일 미국선급협회(ABS), 라이베리아기국(LISCR)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사각지대를 해소한 새로운 선박 구조 개발’에 관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선박 내 사각지대를 ‘제로(zero)화’한 미래형 선박 개발에 나선다. 이 선박은 카메라로 선박 내 사각지대를 촬영한 뒤 AI 기술을 통해 재구성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규정상 시야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이 불필요해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조종실 높이와 관계없이 화물을 선적할 수 있어 적재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ABS와 LISCR은 HD현대가 개발하는 선박에 적합한 규정 변경 제안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신기술 상용화 및 AI 기반 선박 시장 선점에 유리하고

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HD현대가 개발한 친환경 선박 기술에 대한 기본 인증(AIP)도 잇따라 이뤄진다.

HD현대는 4월 미국 아모지사와 공동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반의 무탄소 전기추진시스템 및 발전용 엔진 대체 기술을 적용한 암모니아추진선에 대해 각각 영국 로이드선급(LR)과 미국선급으로부터 기본인증을 획득한다.

스위스 윈지디(WinGD) 등과 함께 개발한 암모니아 연료 엔진 및 연료공급시스템과 HD현대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안전 패키지를 적용한 석유화학제품운반선 및 컨테이너선에 대해 미국선급, 노르웨이선급(DNV)으로부터 오는 5일과 6일 각각 기본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형 선박 개발을 통해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바다의 대전환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KT-MS, AI·IT 등 첨단산업 분야 동행

양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멀티 초거대언어모델 구축 방침

KT가 인공지능(AI)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을 잡았다. KT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MS와 AI·클라우드·IT 분야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 MS 본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 겸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KT와 MS는 ▲AI·클라우드 연구개발 공동 프로젝트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 개발 ▲AI·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AI·클라우드 인재 양성을 함께한다.

양사는 국내 AI·클라우드 산업에의 대규모의 협력과 지원 전략을 9월까지 상세화 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왼쪽)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KT는 MS 기술을 활용해 공공과 금융 분야 고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및 AI 주권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소버린 클라우드’, ‘소버린 AI’를 개발해 한국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KT는 MS와 멀티 초거대언어모델(LLM) 전략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자체 개발한 초거대 AI ‘믿음’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현재 AI컨택센터(AICC)에 적용한 상황이다.

이번 협력으로 믿음은 산업에 특화된 경량화언어모델(sLLM)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KT는 MS와 단순 기술 협력을 넘어 상호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가져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KT가 출시할 한국형 AI·클라우드·IT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AICT 컴퍼니’로의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취임 후 연말부터 6개월 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KT가 쌓아온 국내 사업 경험과 MS의 기술을 결합하기로 했다”며 “MS와의 전략적 협력으로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이질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가동식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전선

대한전선, 당진 해저케이블 공장 본격 가동

영광낙월 프로젝트 내부망 생산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해상풍력 산업의 글로벌 공급사로 자리매김한다.

대한전선은 충남 당진 시아산국가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의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 3일에 공장 가동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1공장은 평택 당진항의 고대부두 배후 부지에 위치해 있다. 총 면적 4만4800㎡(약 1만3500평)로, 2단계로 나누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1단계 공장

은 해상풍력 내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설비로 지난 5월 준공 승인을 완료했다. 시운전 및 시제품 생산 과정을 거친 후,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공급할 내부망 생산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은 “해저케이블 1공장 1단계 설비가 완비돼 매년 급성장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라며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글로벌 해저케이블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기아, EV3 사전계약 돌입

기아가 전용 콤팩트 SUV 전기차 ‘더기아 EV3(이하 EV3)’의 사전 계약을 시작한다.

기아는 EV3의 사양 구성과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지점과 대리점에서 계약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 적용 기준 EV3의 판매 가격을 스탠다드 모델 3995만원부터, 롱레인지 모델 4415만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스탠다드 모델은 3000만원 초중반, 롱레인지 모델은 3000만원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차현정 기자

SK가스, LNG·LPG 통합 가스발전소 운영

울산지피에스 LNG 시운전 성공

SK가스가 투자한 울산지피에스의 LNG 시운전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를 통해 SK가스 LNG 사업의 핵심 인프라들이 성공적으로 연결됐다.

4일 SK가스에 따르면 울산지피에스가 가스터빈 최초 점화 성공을 통한 통합 시운전에 돌입했다.

울산지피에스는 지난 5월 1일 LNG 연료를 연소해 400MW(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를 가동하는 최초 점화에 성공했다. 이번 최초 점화는 지난 4월 LNG 터미널인 KET에 처음 도입된 LNG가 사용되면서 SK가스 LNG 밸류체

인의 핵심인 터미널사업과 발전사업의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SK가스는 설명했다.

지난달 7일에는 LNG 연소를 통해 발생한 전기를 한국전력 계통망에 연결해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결에도 성공했다. 이는 울산지피에스가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고 있음을 뜻한다.

SK가스는 울산지피에스의 LPG 연료를 사용한 가스터빈·스팀터빈 가동 등 통합 시운전과, KET와의 운영 안정화를 거쳐 올해 하반기 LNG사업의 상업 가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한국타이어, 유럽서 TBR 기술력 뽐내

(트럭·버스용 타이어)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전파”

한국엔컴퍼니그룹의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유럽 시장에서 프리미엄 트럭·버스용 타이어(Truck and Bus Radial, TBR) 기술력을 선보인다.

한국타이어는 4~6일(현지시간) 영국 워릭셔주에서 열리는 글로벌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3년 연속 전용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TBR 기술력을 소개한다. 주요 제품으로는 ▲e스마트 시티 AU56(e-SMART City AU56) ▲스마트플렉스 AL51(SmartFlex AL51) ▲스마트플렉스 DL51(SmartFlex DL51) 등이 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를 통해 영국 상용차 타이어 교체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유럽에 자사의 TBR 기술력을 다시 한번 알리고,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전파할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